

2024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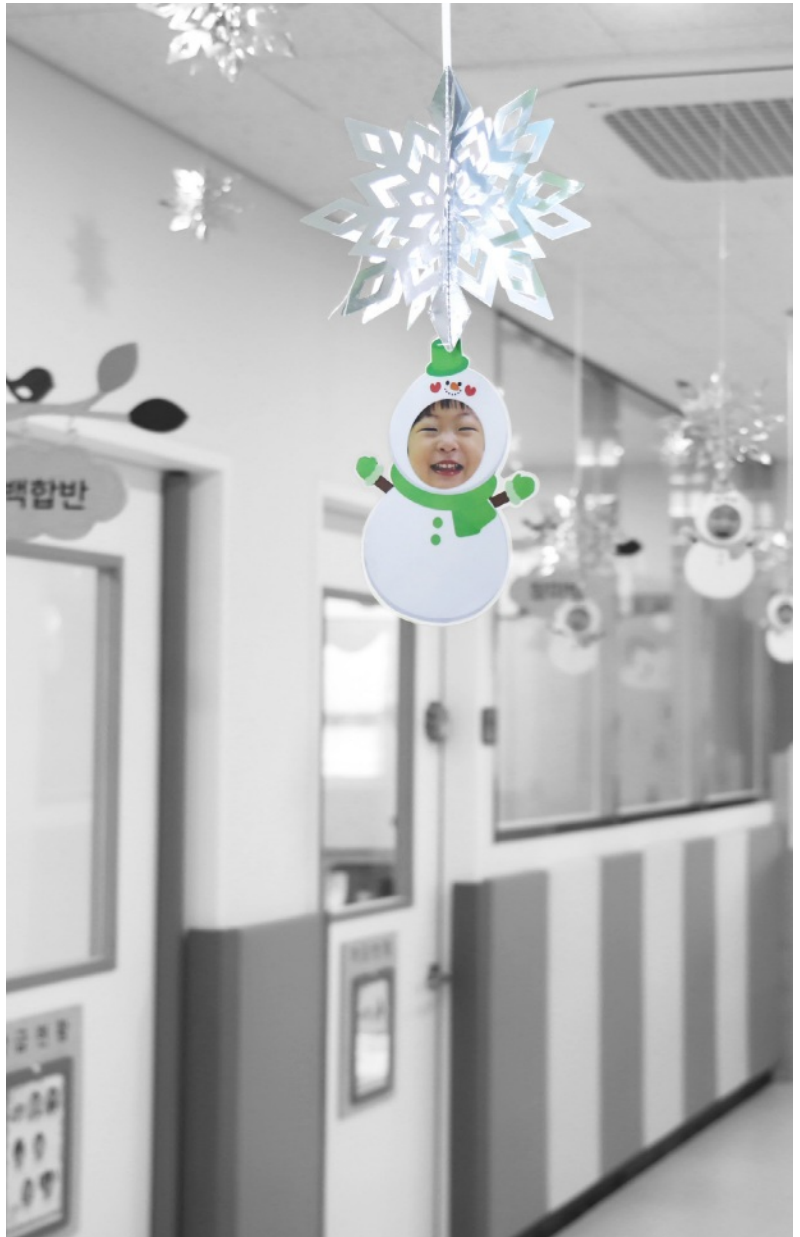
# 인천 119스토리

## 함께소방

혹독한 겨울, 쪽방촌 화재안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  
새내기 소방관의 소중한 캠페인 경험

## 현장소방

SARS? SALS?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선 사람들



인천소방본부

# 목차

함께소방	• 혹독한 겨울, 쪽방촌 화재안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	03
	• 새내기 소방관의 소중한 캠페인 경험	06
현장소방	• SARS? SALS?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선 사람들	08
	•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소방 뉴스 +	10
안전소방	• 문단속이 생명을 살린다	14
	• 스마트폰 폭발을 스마트하게 예방하자	17
생활소방	• 인천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19
행사소방	•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 영종소방서 미니 올림픽	22
	• 인천남동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영웅이 포토존 운영	25
문화소방	• 소래습지생태공원	28
	• 시민들은 모르는 소방서 이야기 -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한번..	29
	• 그림으로 보는 인천소방	32

## 흑독한 겨울, 쪽방촌 화재안전을 위한 ❀. 따뜻한 관심 ❀

글 중부소방서 안전문화팀 소방위 조인자



인천광역시 중·동구에는 유난히 쪽방촌이 많은 편입니다.

북성동1가 일대와 소설 ‘깡이부리말’로 알려진 만석동 9번지 일대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내 쪽방촌입니다.

이곳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년 이번 겨울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동절기 한파에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아끼기 위하여 선택한 난방 도구는 전기장판, 전기난로와 같은 온열기기입니다. 그러나 온열기기는 사용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화재 등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은 대부분 혼자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아 노후화된 전기시설, 온열기기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재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쪽방촌은 특히나 밀집된 건물과 목조 자재 사용으로 화재 발생에 매우 취약한 여건입니다. 화재 발생 시 불길이 쉽게 번질 수 있으며 질식사고 등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 겨울철 우리 소방은 특히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7일, 월미로38번길 일원 쪽방촌을 유관기관과 함께 방문하여 합동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날 컨설팅에는 소방, 행정복지센터, 의용소방대, 무료소방대원 등 40여명이 참여하였고, 소방은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소공간용 소화패치를 보급하고 주택용소방시설 점검 및 고장시설은 교체해 드렸습니다. 또 쪽방촌 일대에 설치된 우리동네 소화기 함도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개항동에서는 보건 복지 상담반을 편성하여 겨울철 안전 확인 및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어르신 건강체크, 한파대비 건강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방한용품 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 어르신께서는 “집이 낡고 밀집되어 항상 화재가 걱정되었는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소방시설을 점검해 주고 겨울철 건강관리 및 방한용품을 전달해 줘서 고맙다.”라고 고마움을 거듭 표현하셨습니다.

올해도 큰 한파가 예상됩니다. 중부소방서에서는 한파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난방용품, 화목보일러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및 안전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쪽방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새내기 소방관의 소중한 캠페인 경험

글 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안우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안우석입니다.

저는 2019년도 소방에 처음 들어와, 이제 막 5년 차 소방 생활을 하고 있는 아직은 새내기 소방공무원입니다. 미래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시작으로 소방의 첫 스타트를 했는데, 돌이켜보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임용이 되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기수의 동기 형님들에게 배우고, 센터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적응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업무를 두루두루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예방안전과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7개월 정도 지나며, 아직도 기존의 현장 업무와 많이 달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성탄절에 TV 뉴스를 통해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한 사건 보도를 접했습니다. 사망자 중에 아빠가 2살 자녀를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아이는 다행히 살았지만, 아빠는 사망했다는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10층에 거주하던 주민도 11층으로 대피하다 사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화재는 4층에서 났고, 연소확대가 10층 내부까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사망자가 발생했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아파트 화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소방청과 인천소방본부에서도 신속하게 피해 원인 파악을 거쳐, 아파트 화재 피난 대피 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앞서 들었던 의문점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공무원, 그리고 모든 국민 또한 생각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마침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라서 앞으로 개정된 피난 대피 방법을 꼭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찰나, **화재예방 캠페인**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꼭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제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한다고 하니 다소 떨렸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캠페인 장소인 ‘인천대입구’ 역사 내 개찰구로 이동하니, 함께 참여하기로 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이미 도착해 계셨습니다. 30명 가까운 많은 인원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니 왠지 든든하고 안심되었습니다. 서둘러 어깨띠를 착용하고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오고 가는 곳이라, 유동 인구가 한꺼번에 많아졌다가 한꺼번에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이 동시 집중적으로 리플릿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이어폰을 착용하고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 등을 보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바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옆으로 다가가서 홍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바쁜 길을 막고 서니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시민들도 있어서 가슴이 철렁해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따뜻한 눈길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덕분에 마음이 풀어진 때도 있습니다. 요령이 생겨 길을 막지 않고 따라가며 홍보하는 스킬까지 생겼습니다.

2시간가량의 캠페인 동안 뉴스에서 본 무리하게 대피하다가 참사를 입은 영상을 떠올리며 힘을 내곤 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캠페인 시간 동안 제가 시민들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이 끝나고 함께 고생한 선배님들과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제야 제 등이 땀에 흠뻑 젖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적어서 긴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제 담당 업무가 화재예방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민들을 살리겠습니다.

### 제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화재가 발생하면 꼭 대피를 시도해야 하며, 대피하는 길인 복도나 계단에 화염 또는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한 대피는 절대 금지입니다. 오히려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집 내부에 있는 피난 시설, 아파트 건물에 설치된 피난대피공간으로 대피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 SARS? SALS?

##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선 사람들

글 부평소방서 산곡119안전센터 소방장 박상원



흔히 사스는 보통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의 119구급대에서는 사스(일명 썰스)는 스마트 의료 지도(Smart Advanced Life Support)의 약자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기관의 전문의사가 웨어러블 기기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실시간 영상을 보며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경 출동지령서에 ‘오토바이 운전자 넘어짐’의 신고 내용으로 구급출동이 내려왔다. 현장의 바닥 면은 얼음이 있는 경사면이라 미끄러웠고, 위치 또한 산 중턱 약수터 초입이라 길이 좁은 탓에 구급차가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동이 꺼진 상태로 서 있던 오토바이 밑에 안전헬멧을 쓴 채로 누워 있었다.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단순 낙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환자를 처음 접한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심폐소생술(CPR) 적용 상황이라 흉부 압박을 하면서 무전기를 통해 곧바로 다른 구급차 한 대를 더 요청했다.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스마트 의료지도를 받기 위해 영상통화를 연결하고, 현장상황을 촬영하면서 응급의료센터 의사의 지도하에 아이젤을 환자 구강 안으로 기도 삽관을 하였고, BVM(Back-Valve Mask)으로 2회씩 공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곧바로 다른 구급차는 도착하자마자 정맥로 확보를 하였고, 라인이 잡히자마자 화상통화 중인 의사 지도 하에 에피네프린(강심제) 10회, 아미오다론 300mg, 150mg 각 1회씩 약물들을 주입하였다.





그 외 대원들은 수액을 들고 있으며 교대로 흉부 압박을 실시하였다. 가슴압박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황이었지만, 내 손에는 아직 심정지 환자의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었다.

제발 다시 살아나시길...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로 전기충격을 주고, 이후 제세동기 한 대를 더 추가하여 몸통 뒤로 하여 총 17회 쇼크를 주었다. 연이어 가변형 들것에 기계식 가슴압박 장치(일명 루카스. 일정한 수직의 힘으로 심장을 자동 압박하는 기계)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송 준비를 위해서 메인 들것(주 들것)에 옮긴 후, 구급차는 응급처치 대원 3명과 함께 인천성모병원에 VF(심실세동) 상태로 CPR이 준비된 의료진에 인계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 대원이 병원에 심정지 환자의 생사 여부를 알아보았지만 안타깝게 상황 종료(Expire)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등산복 차림의 행인이 최초로 환자를 발견했지만, 한 겨울인지라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냥 현장을 지키고 계시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바로 가던 길을 다시 가셨다. 최초발견자이자 신고자께서 환자 발견 즉시 가슴압박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심장마비 발생 후 신고자에 조금만 더 빨리 발견이 되었더라면 다시 리듬이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내 머릿속에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스치며 지나갔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구급대원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를... 그리고 오늘도 모두가 무사하기를 기도한다.

##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소방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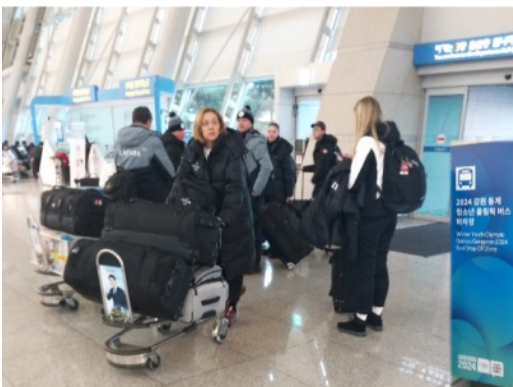


### 설 명절 주거시설 화재! 주원인은 부주의!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 중 39.7%(27건) 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기간 총 68건의 화재가 발생해 9명이 다치고, 약 3억1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발생 장소로는 주거시설 24건, 생활서비스 8건, 판매업무시설 6건 순으로 발생했다. 그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거시설은 아파트 8건, 단독주택 7건, 다세대 주택 5건 순으로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으로서는 부주의가 50%(12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요인 29.1%(7건), 기계적요인 12.5%(3건)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는 주거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장기간 외출 시 사용하지 않는 전열 기구의 전기 플러그를 뽑아두고, 가스레인지의 중간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기를 당부했으며, 화기를 사용 중에는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되도록 자리를 비우지 않으며 불을 자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소방, “출국까지 안전 올림픽”

‘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참가 선수와 관광객 등에 대한 안전한 입·출국과 성공적인 ‘안전 올림픽’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개회식 일주일 전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소방공무원 578명과 소방장비 162대를 배치해 출국이 집중되는 폐회식 후 2일까지 선수단과 관광객의 안전한 출국을 도왔다.

### 설 연휴 위급상황시 다매체신고 홍보

인천소방본부는 설 연휴 신고폭주에 대비하여 신고전화 뿐만 아니라 다매체 신고서비스 운영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다매체신고는 문자신고, 119신고앱, 영상통화 및 누리집 신고가 있으며, 전화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 등에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었으며, 대형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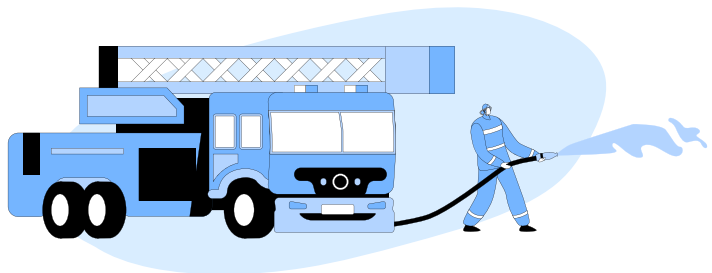


### 인천소방본부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추진

2024년 설 연휴를 맞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총 6일 동안 공항, 버스터미널, 역사, 연안여객터미널 등 대규모 다중운집 예상 지역의 사고 발생 방지 및 다수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별경계근무에는 인력 2,136명(소방공무원 2,030명, 의용소방대원 106명)과 차량 568대가 동원된다. 또한, 연안여객터미널 등 취약지역 67개 노선에 대해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인천가족공원묘지 등 13개소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한다.

인천소방본부는 다중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소방관서장 현장 확인과 인파가 많이 붐비는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우월한 소방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지휘권을 상향하여 관서장 현장지휘 및 인명구조 중심 대응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과 협의 및 이송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및 재난발생 시에는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소방차량정비 전문의용소방대, 섬지역 소방차량 정비에 돌입

소방차량정비 전문의용소방대는 2015년 차량정비 자격 및 기술을 보유한 대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십 년간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섬 지역 등 도심과 떨어진 소방관서의 차량을 정비하여 신속한 출동을 돕고 대원들의 차량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비활동은 차량의 엔진 및 주요 부품의 점검 및 교체, 소방 장비의 점검과 보수 요령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천 섬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차량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나 갈 계획이다.



## 엄준옥 소방본부장, 쿠팡 물류센터 현장지도점검

물류창고는 복잡한 구조와 다량의 가연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가 매우 크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관계인 간담회 △물류센터 내 화재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소방시설 및 화재 취약요인 점검 △자율소방대 운영 및 초기대응체계 등을 확인하고 지도했다.

엄준옥 소방본부장은 “물류센터는 화재하중이 커 화재시 대형화재로의 확대 우려가 높은 만큼, 평상시 소방시설 점검과 피난 훈련 등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IFEZ와 구도심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고층건축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은 고층건축물이 139단지 655개동으로 전국 18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다. 고층건축물은 점차 대형·고층화되고 있고,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 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07건으로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주요원인(83%)이며 매년 평균 2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고층건축물 재난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며, 주요내용은 ▲ 119상황관리 시스템 확충 및 운영 강화 ▲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보강 ▲ 피난안전 컨설팅, 소방안전교육 등 예방안전대책 추진 ▲ 신속 출동환경 조성 및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고성능-CAFS 소방차량 도입 등이다.

## 의료계 집단행동, 인천소방 ‘응급이송 비상체계’ 가동

인천소방본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20일부터 119구급활동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소방본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 병원을 선정해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응급의료 상담 전화 폭주를 대비해 수보대를 증설하여 운영중이며, 경증 환자는 의료상담을 통해 치료 가능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정보 제공하고, 병원 이송이 필요한 경우 구급대에서 병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119구급대에서는 중증(Pre-KTAS Level 1, 2)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인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고, 응급(Pre-KTAS Level 3)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비응급(Pre-KTAS Level 4, 5)환자는 응급의료시설 또는 일반 병·의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은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실 등의 진료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 가능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고 응급실과 119구급차의 이용은 자제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하였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 지연으로 인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문단속이 생명을 살린다

글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 소방사 박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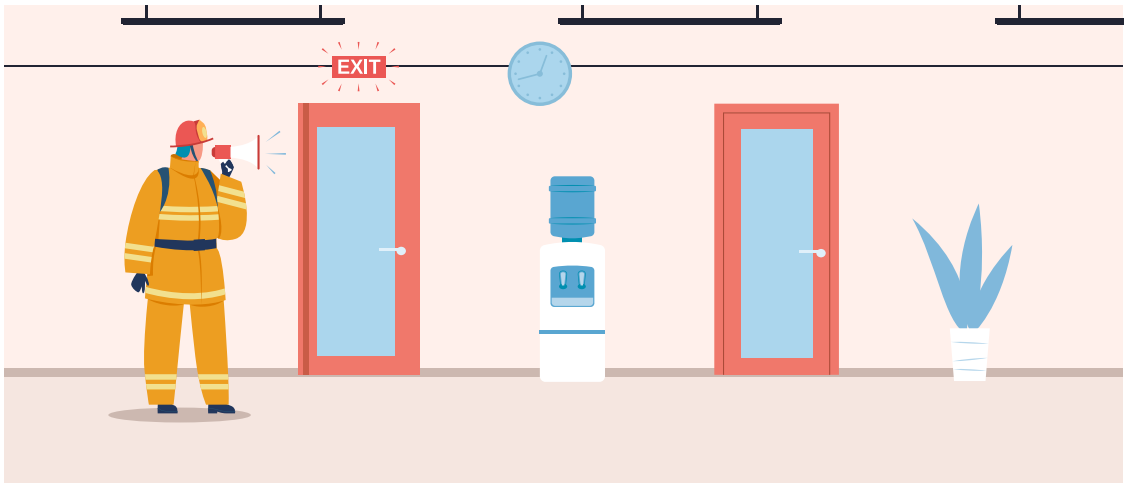


소방공무원이 되고 나서 생긴 습관이 있다. 영화관, 백화점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갈 때 항상 비상 대피로와 소화기, 그리고 AED 위치를 무심코 확인하게 되었다. 이유는 화재가 났을 때 나 하나만 정신을 차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소화기를 이용해 진압을 시도하는 것 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다.

아직은 나에게 그런 상황이 생긴 적은 없다. 일상생활에서 화재를 경험하는 것은 생각만큼 흔한 일이 아니며, 나 역시도 이 직업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를 경험한다면 진압은커녕 먼저 겁을 먹었을지도 모른다.

제76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진압대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화재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생각을 갖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이 있으니, 바로 열려 있는 방화문이었다.

‘방화문’이란 막을 방(防) 자를 쓰며, 말 그대로 불을 막는 문이다. 최근에 많은 상가의 방화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항상 닫혀있어야 할 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쉽게 활짝 열려있었으며, 심지어는 닫히지 않게 물건이나 소화기 등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무언가를 막는 문은 열려있으면 소용이 없다. 언제 어디서 침입할지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집을 보호해 주는 현관문은 철두철미하게 닫혀있으며, 잠금장치도 점점 두꺼워졌다. 하지만 똑같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피해를 막아주는 문은 열린 상태로 고정까지 해놓은 모습을 보니, 닫힌 방화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을 느꼈다.

방화문의 설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사람의 목적은 목숨이다. 방화문이 목숨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방화문은 종류에 따라 90분에서 1시간 이상까지 불을 막아줄 수 있으며, 여러 곳에 설치되어있고, 그중에는 피난 계단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들이 빠져나가는 곳을 불길로부터 수십분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은 수십 분이지만, 언젠가 소재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훨씬 강한 열기에도 오랫동안 끄떡없는 방화문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몇날 며칠을 버티는 방화문도 열려있으면 나무문과 똑같이 무용지물일 뿐이다.

비슷한 예로 바다를 향해하는 배에는 격실마다 방수문이 있다. 배에 구멍이 나서 내부에 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물이 차지 않게 하기 위한 문이다. 만약 물이 새는 격실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배는 그만큼 빨리 가라앉을 것이다.

물이나 불이나 문으로 막아야 하지만, 물은 닿는 것 만으로는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화염은 닿는 것 만으로도 심각한 화상을 입히며 연기를 한 모금 만으로도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물보다 연기의 유동속도가 빠를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비상계단으로 연기와 화염이 넘어오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마저 막아버리는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다.



2023년 3월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1층에서 난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이 15층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애초에 방화문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가 계단으로 빠르게 차올랐다. 방화문이 있었다면 최소 30분의 대피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만약 방화문이 있었어도 열려있었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화재를 생각하면 끄거나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실제로 소방안전체험에서도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방법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뛰기 전에 걷고, 걷기 전에 일어서야 하며, 쉽게 일어서려면 바닥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화재현장에서 대피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피난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는 그 시작이 방화문을 닫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피난로는 안전해야 한다. 방화문이 닫혀야 피난로가 안전해진다. 생각만 살짝 바꾸면 어렵지 않다. 방화문을 현관문이라고 생각해 보자. 집을 들락날락 할 때 문을 닫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관문을 닫는 것 만으로 큰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화재로부터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열린 방화문부터 닫으면 되는 것이다.

**닫는다는 것은 막는다는 것.**

**열려있는 방화문을 닫아 피해를 막아보도록 하자.**



# 스마트폰 폭발을 스마트하게 예방하자

글 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소방장 임명수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글쓴이도 어릴 적 이 말을 실감하며 살았지만,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다. 과학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제도나 관습 등은 이에 발맞추기가 벅차 보인다. 세상이 변할 시간으로는 십년은커녕, 1년이면 족한 시대가 왔다.

화재 예방 기술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발화 원인이 현재는 큰 화재나 인명사고로 번지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시대이다. 예컨대, 누구나 하나쯤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인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만들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장점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마치 아름다운 장미의 가시인 양 한순간에 우리의 안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이 폭발했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두었던 그것이 부비트랩처럼 얼굴에서 폭발했다는 소식을 가끔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던 것이다. 사용자가 부주의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

글쓴이에게도 뾰족한 답은 없다. 단지 스마트폰이 폭발하지 않게 막는 것뿐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까’라는 속담처럼 폭발이 무서워 스마트폰 사용을 포기하는 현대인이 과연 있을까? 글쓴이의 생각은 단지 스마트폰이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전기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접목할 수 없는 이유가 스마트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전자기기가 아닌 신체 부위 정도로 생각해서가 아닐지 생각한다.

스마트폰 폭발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계의 온도를 높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계는 작동하는 동안 열이 발생한다. 스마트폰은 구조상 집적도가 높아 저항 때문에 발열이 심하다. 한 손에 꼭 쥐어지는 작은 사이즈를 위하여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또한 기온이 높은 곳, 예컨대 찜질방,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삼가야 한다. 이는 폭발 위험 말고도 기계의 수명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 웬만한 TV 한 대 값의 스마트폰을 약정 기간이라도 온전히 쓰고 싶다면 글쓴이의 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 둘째, 주머니 속을 살펴라.

우리는 주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 주머니 속에는 스마트폰 외에는 아무것도 같이 넣지 말자. 특히 동전은 폭탄의 심지만큼 스마트폰에게 위험한 존재이다. 동전은 금속이어서 전기가 잘 통한다. 이는 정밀한 스마트폰에 합선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이다. 또한 먼지 중에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작은 것들이 스마트폰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스마트폰 폭탄을 터트리는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우리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오로지 득만 주는 것은 없다. 득과 같이 따라오는 실을 없앨 순 없지만, 그것을 잘 관리한다면 지혜롭고 스마트한 세상이 될 것이다.



# 인천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글 인천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원장 유인란



인천검단소방서에서는 인천소방 최초로 직원 복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3일 첫 개원 이후 8명의 교직원이 소방대원 자녀 14명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소방공무원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직장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전인적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원장 유인란입니다.



인천소방에서는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설립됐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신 계기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연한 기회에 위탁체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이라는 점이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소방 최초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자녀를 보육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아직 직장어린이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어린이집 소개와 보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3세 반까지 하늘반(만 0세), 백합반(만 1세), 바다반(만 1,2세), 장미반(만 3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어린이, 함께하는 어린이, 창의적인 어린이라는 원훈

아래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소방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들이라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연령대별로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같은 직업군이다 보니 어린이집 행사와 등·하원 시간에 서로 마주칠 때 좀 더 친근한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소방서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을 꼽아주신다면요?

우선 장점으로는 어린이집이 소방서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 놀이터에 나와 활동할 때 엄마·아빠와 인사할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처음 적응하는 기간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어린이집이 직장과 가까이 있어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서 여러 행사가 있는 경우에 부모님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 행사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큰 장점인데요. 아이들의 특성상 아프면 엄마를 찾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어



린이집 가까이에 근무하시다 보니 아이들이 아플 때 연락을 드리면 잠깐이라도 내려와 방문해 주셔서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직 없네요. (웃음)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작년 4월,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늦은 저녁까지 준비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많이 설렐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등원하여 선생님들과 대면할 때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준비한 환경과 놀잇감에 흥미를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보람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어다니던 아이가 걷게 되고, 뛰어다니고, 말하기 시작하는 등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정화됨을 느낍니다.



인천검단소방서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개원 초기부터 애쓰셨던 송태철 서장님과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이 일어설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소방서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 취임하신 김성덕 서장님께서는 새해 첫 출근과 함께 어린이집에 방문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 운영을 잘 돌봐주실 거란 믿음에 더욱 힘이 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을 믿고 보내주시는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일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고, 지지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년도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셔서 둘러보시고 상담도 하고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인천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 영종소방서 미니 올림픽

글 영종소방서 소방사 박진성



“오~ 진성, 대표인 건가?” 김희곤 서장님은 무척 놀라워하셨다. 예방안전과의 대위기 상황에서 제기차기 선수로 필자가 과감하게 도전했기 때문이다. 서장님 앞이라 괜히 떨리는 것도 있고, 부담되었지만 필자는 해냈다. 1차식 1회, 2차식 0회를 기록하여 모두에서 큰 웃음을 선물할 수 있었다.

웃음꽃이 활짝 피고 모두가 하나가 된 한해를 맞이하고, 묵은해를 보낸 영종소방서 미니올림픽 행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농구가 종목이었다면, 예방안전과가 1등이었다!”**  
- 소방 ○ ○ ○ ○

이번 영종 미니 올림픽은 농구를 제외한 피구, 배드민턴, 족구 3종목과 제기차기, 단체 줄넘기 등의 미니게임으로 이루어졌다. 예방안전과의 간판 종목인 농구는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그렇게 영종도 르브론 제임스의 농구 실력은 세상에 보여질 수 없었다. 대신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었다.



**“솔직히 6명이 4명에게 지는 것은 말이 안 돼!”**  
- 소방 △ △ △ △

12월 29일 종무식 및 최종 결승전 전, 그 틈을 이용한 메인 종목 피구, 배드민턴, 족구 3종목의 리그 및 토너먼트를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경기였다. 특히 팀원 출장으로 인해 피구 6:6이 아닌 4:6으로 대결하여, 승리한 119재난대응과와 패배한 예방안전과의 대결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결과가 실현되는 즐거운 한 마당이었다.



**“이건 살려야 한다. ○○아~ 꼭 살려라. 으아아~ 이러면 어떡해”**  
- 소방 □ □ □ □

언제나 그렇듯 게임을 하기 전에는 다들 귀찮아하고, 하기 싫은 것으로 보이지만 코트 안에 서서 공이 튀겨지는 순간 모두가 진심이 된다. 일은 실수하고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은 살려서 상대방 코트로 보내야 한다. 모두가 진심으로 참여한 미니 올림픽이었다.



**“결국 상품이 짱이야!”**  
- 소방 ◇ ◇ ◇ ◇

이번 올림픽에는 영종 의용소방대 대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많은 귀빈 역시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또한 많은 분이 참조해 주셔서 자리를 더욱 뜨겁게 만든 경품 추첨식이 있었다. 일단 계속저도 상관없다. 상품을 따면 항상 기분이 좋다. 동시에 우리 소방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조금만 더하면 돼! 보여주는 거야!! 힘을 내!”

- 소방☆☆☆☆

연습에 0개를 기록한 예방안전과는 1등 기록인 50개를 향해 쾌속의 전진을 이어 나가고 있었다. 31...32...33...34...35!! 모두가 힘을 내라고 소리치며, 앞의 동료들을 보며 힘을 얻는다. 다리가 아파도 동료들을 보면서 함께 이어 나갔다. 정말 훌륭한 팀워크,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팀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미니올림픽의 목적은 결국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뛰고 있는 모두가 그렇게 느꼈다. 그리고 예방안전과는 39개에서 끝났고, 2위가 되었다.



### “우리의 한해를 되돌아보며...”

2023년은 필자에게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운 한해였다. 그야말로 잠깐의 영상과 짧은 암전이었지만, 지난 1년이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졌다.



### “종합 우승은 119재난대응과”

결국 종합 우승은 119재난대응과로 선정이 되었다. 푹푹 뭉쳐서 거둔 훌륭한 성과였고, 정말 하나의 팀이고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팀은 관심이 없기 마련이다.



###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뜻깊을수도, 누군가에게는 아쉬울수도 있지만 큰 사고 없이 한해를 무사히 잘 보낸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을 잘 합쳤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에게 박수를, 그리고 모두 2024년을 위해 화이팅!

# 인천남동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영웅이 포토존 운영

글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신나람솔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는 내가 가끔 받는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은 감사하게도 ‘소방관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다’ 등이다. 그럼 나는 고민 없이 가장 먼저 부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소방차 길 터주기’이다.

사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장비들로 사람을 구조하고 불을 끄고, 다친 사람을 처치했다고 할 정도로 열악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선·후배들의 노력 덕분에 장비는 더욱 전문화되고 편리해졌으며, 최신식 차량이 보급되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쓸모가 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비싼 소방차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방관이 나가는 출동에는 여러 가지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 화재 시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필요하고,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심폐소생술을 위한 골든 타임은 4분이다. 이 시간은 단순히 구조 대상자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 출, 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도로 위에 있는 사람 중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잠시 비켜준 10초가 모이고 모이면 골든 타임이 된다. 소방에서는 매년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체험, 전단지 배부, TV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다.

인천남동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위해 소방서에 위치한 소방안전체험장 벽면에 ‘소방차 길 터주기’ 영웅이 포토존을 제작하였다. 기존의 다소 밋밋했던 체험장 벽면을 보수하면서 체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소방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이다.

남동소방서는 이를 활용하여 단순히 놀이를 위한 포토존이 아닌 생활 안전 교육 장소로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관들에게는 시민들이 내어주는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어디선가 긴급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위해, 그들을 위해 달려가는 소방관을 위해 아래의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요령

###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 일반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긴급자동차의 통행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 일시 정지 가능

###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 정지

###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

### 편도 3차선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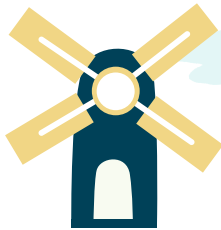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1차선(좌) 및 3차선(우)로 양보 운전

###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 소래습지 생태공원



글 공단소방서 소래119안전센터 소방교 최진영

주말에 가볍게 산책하고 싶다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의 소래습지생태공원을 둘러보길 추천한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폐염전을 개조하여 만든 곳으로 지난 1999년 개장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에는 둘레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정문에서부터 산책로를 따라 쭉욱 걷다 보면 갯벌체험관이 나온다. 이곳은 맨발로 갯벌에 들어가 걸으며 산책할 수 있다. 또 풍차와 갈대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길에는 해수족욕장도 만날 수 있다. 맨발로 갯벌체험을 하고, 족욕장에서 족욕을 즐기고 있다면, ‘지상낙원이 바로 여기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전망대를 통해 습지생태공원의 전망을 한 눈에 담아보자. 이곳에는 드넓은 갈대밭과 포토존인 풍차가 있어, 가족, 연인과 공원 산책 후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길 추천한다.



## 시민들은 모르는 소방서 이야기

- 어머니외 위대함을 다시한번..



때는 2011년 10월.. 선선해지는 날이었고,  
나는 여느날 처럼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있는데..

**애애애애애애애  
화재출동! 화재출동!**

부평소방서 화재출동, 갈산동 아파트 화재발생.  
출동대는 갈산, 부개, 삼산, 구조대 출동하세요.

우리는 즉시 출동했고, 출동 중 차량에서  
장비를 착용했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화재가 난 층에 이상한 점이 보여졌다  
모든 창에서 연기가 나는데, 유독 한곳만 연기가 안나오고있었다.



(뭔가 이상한데..?)



화재가 난 곳은 6층 정도로 확인되어  
우리는 서둘러 올라갔다.



문이 잠겨있었기에,  
도어오프너를 사용하여 문개방을 시도했다.



여기서 꿀팁!!!



● 도어오프너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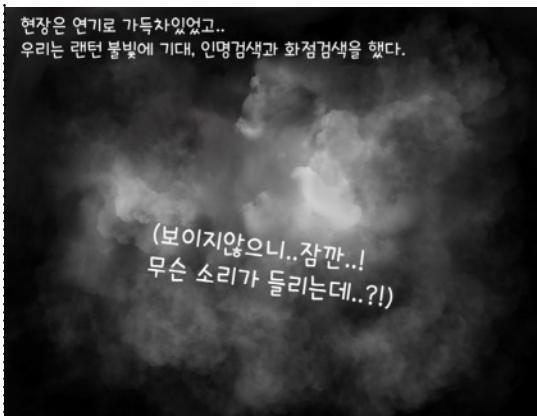
화재 혹은 응급상황 시, 잠겨있는 문을  
개방할때 사용하는 문개방 장비중 하나로  
유압오프너, 일반배적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곧 문개방이 되었고,  
우리는 즉시 현장으로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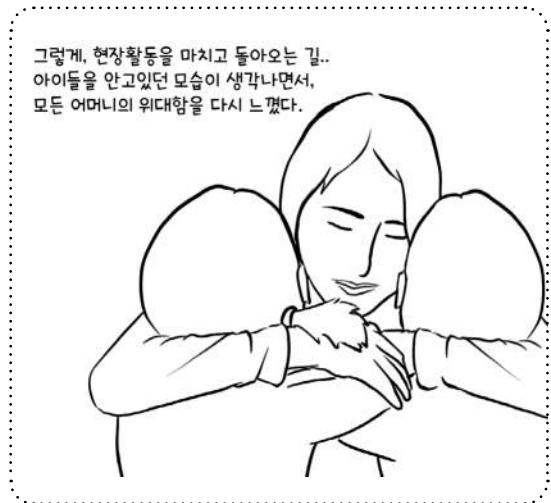
현장은 연기로 가득차있었고..  
우리는 랜턴 불빛에 기대, 인명검색과 화점검색을 했다.

(보이지않으니..잠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검색을 하던 중,  
목소리와 함께 물소리가 들려왔다.







# 그림으로 보는 인천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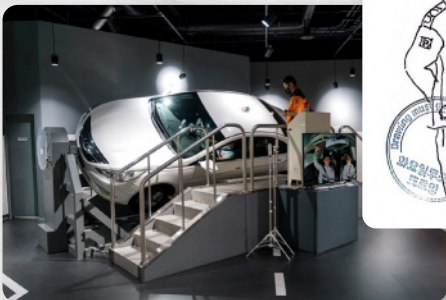
그림 어반스케쳐스인천

‘어반스케쳐스인천’ 국민안전체험관 방문하다.

※ 국민안전체험관 : 인천광역시의 특징을 반영한 항공, 해양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8개 안전 체험존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공간







---

# 인천 119스토리

2024 2월호

---